

사설

아버이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을 끝까지 실현하자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경축하는 이 시각 우리 겨레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한생의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치신 평생의 로고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쌓으신 위대한 업적은 조국정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뜻이었으며 절절한 념원이였다.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우리 겨레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 하시며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어느 하루도 심려하지 않은 날이 없으며 어느 한때도 편히 쉬신 날이 없으시였다. 자신의 근심걱정은 오직 하나 아직 조국을 통일하지 못한것이며 자신께서는 자나깨나 분렬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생각뿐이라고, 조국이 통일되면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하시며 그이께서 지새우신 밤, 걸으신 길은 그 얼마였던가. 나라의 정사를 토론하실 때에도, 창밖에 눈비내려도 그 언제나 피를 나눈 겨레를 생각하시고 통일문제로 가슴 불태워오신 수령님이시다.

하나의 조선!

이것은 아버지수령님의 불변의 통일의지이고 철석의 통일신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20성장 백두의 험산준령을 넘나드시며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신것은 분렬된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였다. 수령님께서 백두밀영에서 등잔불을 추켜드시고 비쳐보신 조국의 지도는 백두산에서 한나산에 이르는 삼천리조선이었지 결코 두동강난 조선이 아니였다.

하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변함없이 견지하신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민족의 룡성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고 반통일세력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분쇄하고 격적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도 마련해주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



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속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어 더욱 강화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에국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리념,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층의 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통일에국의 주체적력량은 전민족적범위로 확대강화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불타는 일념을 안으시고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낮과 밤을 이어가신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조국통일3대헌장을 구현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우리 겨레에게 안겨주시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우리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절세위인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아버지수령님께서 겨레에게 안겨주신 통일의 귀중한 라침판이며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되고 그 진리성이 검증된 과학적인 통일헌장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따라 나아가갈 때 민족의 자주도 오고 단합도 이루어지

며 평화통일의 넓은 앞길도 열여갈수 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북남선언들에는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에서 살아온 북과 남의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단합하고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수 있는 원칙적문제들과 실천적인 방도들이 다 담겨져있다. 북남선언들을 리행하면 화합과 통일이 오고 그것이 리행되지 못할 때 통일의 길에 엄중한 시련과 난관이 조성되게 된다는것은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 진리이고 심각한 교훈이다. 오늘의 복잡한 북남관계는 이 진리를 다시금 더욱 깊이 깨우쳐주고있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지난 3년간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의 한길로만 내달아왔다. 삐라살포와 《종북》소동,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적위기로 몰아온 역적패당은 오늘에 와서는 대결본색을 날날이 드러내고 《북조선정권의 붕괴》를 공언하며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제제와 북침전쟁소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민족이 아니라 외세를 중시하고 통일이 아니라 《북붕괴》의 어리석은 꿈을 꾸며 리성도, 체면도 잃고 갖은 동족대결소동에 매달리는 박근혜역적패당에 의해 북남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마저 깨지고 북남관계는 완전파산의 국면에 처하였으며 이 땅에서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항시적인 위협이 조성되였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반통일파쇼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없고 민족이 열혈참화를 입을수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온 민족은 남조선보수당국이 외세를 등에 업고 벌리는 시대착오적인 체제대결, 동족대결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대결세력, 전쟁세력에게 단호한 징벌을 내려야 한다.

공화국이 틀어린 핵은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지켜주는 정의의 보검이며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자위적군력이 있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대조선압살책동은 파산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주통일의 밝은 앞길이 열리고있다.

정의는 민족적단합과 통일을 시종일관 주장하고있는 공화국에 있으며 힘도 자강의 기치를 높이 든 공화국에 있다. 이 땅에서 통일은 적대세력이 망상하는 《북붕괴》방식으로가 아니라 자위의 억척력을 기둥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 식으로 온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회세의 선군령장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걸으시였던 선군길을 이어가시며 내외분렬주의 호전세력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굳은 확신을 안겨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는 자주통일위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삼천리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뜻깊은 태양절, 4월의 봄명절이 왔다.

최상의 높이에 오른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련일 만방에 표시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자랑찬 승리의 대회로 빛내일 불같은 애국충정과 결사의 의지가 격앙되고있는 때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경축하고있다.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와 모임, 불멸의 꽃 김일성화전시회가, 평양에서는 제18차 김일성화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세계 5대륙의 예술인들의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며 위인칭송의 노래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태양절 경축준비위원회들을 결성하고 김일성주석을 흠모하고 그리는 경축모임, 연구토론회를 비롯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출판보도물들도 그이의 불멸의 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련일 특집하고있다.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경모심이 더욱더 강렬해지고 있는것은 그이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 너무도 크고 위대하기때문이다.

그이께서 민족과 인류를 위해 쌓으신 업적중에서도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주체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신것이다.

지구상에 많은 정치가, 사상리론가들이 있었고 위인들도 있었지만 아버지수령님과 같이 인민대중의 운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주체사상을 내놓으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령도자는 없었다.

주체는 자주이며 곧 애국이다. 일찌기 10대의 시절에 나라를 찾기 위한 항일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온 강토가 망국의 비운에 몸부림치고 고전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성리론이나 명제에 매달리며 옳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주체의 진리를 밝히시였다.

그이께서 밝히신 주체의 진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리론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항일대전을 벌리시면서 자력갱생의

자주시대의 영원한 태양

정신으로 무장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하시고 조선혁명을 위한 자주적로선을 시종일관 견지하시여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바로 자주를 신조로 삼으시고 살며 싸워오시였기에 해방후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도 독창적으로 빛나게 해결하실수 있었다.

우리는 조선식으로 건국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맞지도 않는 다른 나라의 옷을 입을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조선식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고 하시며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해결하신 아버지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치가 있어 미국의 침공을 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에서도 다른 나라의 싸움방식이 아니라 조선의 실정에 맞는 주체의 전략과 전술, 전법으로 싸워 20세기의 군사적기적이 창조될수 있었을것이다.

그이의 자주적 신념과 불변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있었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자주정신의 강자로 자라났고 미국이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설수 없다.》고 떠들던 전쟁의 혹심한 폐허를 짧은 기간에 가셔내는 놀라운 기적을 이룩할수 있었다.

그이의 자주적신념과 배짱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지키고 부강조국을 건설하는 전로정에서 언제나 공화국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는데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전후 일부 나라들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며 《통합경제》를 운운할 때에도 수령님께서서는 우리가 같길은 우리가 안다고 단호히 배격하시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지난 세기 1960년대 초엽 아버지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전략적로선도 그이의 자주적신념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당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새 전쟁준비책동 그리고 군사분계선일대와 공중과 해상에서의 끊임없는 반공화국군사도발행위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의 반구바봉쇄책동으로 하여 까리브해위기가 조성되어 세계정세를 침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국제국내정세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

51(1962)년 12월에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이 한손에는 총,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조국을 보위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호소하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킨다는것은 사실 힘겨운 일이었다. 령도나 인구수로 볼 때 그리 크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와 국방건설의 어느 하나도 약화시키지 않고 다 같이 발전시킨다는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의 존엄을 짓밟거나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적대세력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는 불변의 신념과 자주적 의지, 억센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침략세력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경제국방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사회주의공업화를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으며

나라의 국방력도 비상히 강화할수 있었다.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라는 강국건설의 목표를 내세우시고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조국땅 위에 주체의 강국을 세우신 수령님의 업적을 칭송하여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전 지구장은 《김일성주석의 정치리념을 굳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 나는 그이가 민족자주를 앞세운 민족주의자였다고 말할수 있다. 외세의 지배로부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추구한것은 참으로 존경할만 한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존경과 신뢰심을 터놓았고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김일성주석은 진보적인류가 칭송하는 세계적인 수령이다. 온 세계가 평가하는 국제적수령이 우리 민족의 령수라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자주적 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세계가 알지 못하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심으로써 공화국을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올려세워주시였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걸으신 자주적 길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에 의하여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다고 밝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더욱 빛내이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들의 가증되는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나라의 핵무력을 비상히 강화하도록 하심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시였다. 또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도록 하심으로써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제재책동속에서도 경제가 자그마한 담보나 침체도 모르고 줄기차게 발전해나갈수 있게 해주시였다.

자주시대의 새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걸출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시여 공화국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존엄높은 자주의 나라로 행성에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존귀하신 존함 그대로 불세출의 인간태양이시다.

《김일성》, 이 존함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아버지수령님께 우리 민족이 지어드린 호칭이다.

사람들이 아는것처럼 수령님께서서는 원래 종조할머님께서 지어부르신 《중손》이라는 아명이 있었다. 후날 나라의 기둥이 되라는 만경대일가와 친지분들 그리고 만경대사람들의 소망을 담아 아버지님께서 지어주신 《성주》라는 이름을 가지시였다.

벌써 소학교시절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 영광으로, 의무로 된다는 뜻을 표명하시였고 중학시절에는 민족을 해방하는 투쟁이 자신의 직업으로 될것이라 하시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수령님의 희망과 포부는 원대

하시였다.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비범한 예지로 민족이 나아갈 진로를 밝히시고 대해같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반일독립투쟁에 리 동포 새별을 보네...라는 노래는 삼시에 만주는 물론 국내와 바다 건너 일본땅에까지 퍼 급되었다.

태양의 속성은 빛과 열, 인력이다. 태고적부터 태양의 따스함과 은혜로움을 알게 되면서 인류는 자기들이 숭상하는것에 태양의 이름을

달고 신성시하며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고대문명을 창조한 인가제국사람들은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였고 고대그리스인들은 모든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의 아들들중에서 태양을 수레에 싣고다니는 광명의 신 아폴론의 형상을 창조하여 이 세상에 밝은 해별을 주는 태양을 신성화하였다. 인간을 창조한 신 프로메테우스가 태양의 불을

흘쳐 인간세상에 가져다주었다는 신화도 태양이 인간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것이였다.

그러나 장구한 인류사의 어느 시대, 어느 력사에도 인류가 숭상한 인간태양은 존재하지 않았고 어느 성인이나 위인도 태양의 이름으로 호칭된적

은 없었다. 수령님을 흠모하여 처음에는 《한별》, 《일성》(一星)의 아호를 드린 인민들은 다시 태양에 비기여 《일성》(日成)이라는 존함을 드리게 되였다. 수령님을 태양으로 받들어오신 흠모와환희는 항일대전의 나날 민족의 마음속에서 더욱 열렬하였다. 항일전적지의 나무들에 새겨진 《김일성대장

은 만민의 태양이시다》, 《자자손손 받들자 절세의 영웅 김일성대장》 등 수많은 구호들에 수천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모신 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과 천출위인을 모신 민족의 행운과 공지가 그대로 담겨져있는것이다.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은 그대로 만민의 칭송을 받으신 태양의 력사이다.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한세기에 한분도 나오기 힘들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지니신 수령님에 대한 시대와 력사, 인류의 절대적신뢰와 공인이었다. 불멸의 꽃 김일성화, 국제김일성상 그리고 위도와 경도, 태양과 대륙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김일성학원, 김일성도서관,

김일성대원수거리 등과 같이 기관, 단체, 거리에 모신 수령님의 존함은 정의와 자주적 상징, 승리의 기치, 희망의 등대로 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빛나고있다.

전 미국대통령 카터는 김일성주석은 미국인이 아니라 세계의 건국자들과 태양신들을 다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운명의 태양신이라고 존경을 도로하였다. 그이께서 서거하시였을 때 세계 120여 개 나라 언론들은 김일성주석을 《영원히 세계를 밝히는 태양》, 《인간계에 더는 없을 위대한 인간태양》으로 호칭하였다.

참으로 불세출의 위인적자질과 품모를 지니시고 거대한 업적을 남기신 아버지수령님은 불멸의 존함과 더불어 오늘도 우리 민족과 진보적인류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리 설

민족이 지어드린 위인의 존함

장 시 인 민 은 영 원 히 못 잊 습 니 다

리 송 일

봉오리 터치는 꽃들 보아도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을 보아도
수령님영상 어리어오는
태양절 이 아침
인민은 심장으로 아뢰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수령님!
1월의 창공을 짝 메우던
첫 수소탄시험 성공소식을
수령님 빛내주신 우리 조선이
이제는 이토록 무진막강한
핵보유국으로 되었습니다

경사는 웃음을 낳는다지만
그날 우리는 울었습니다
자기를 지킬 변변한 총이 없어
섬오랑개들에게 짓밟혀 피러지며
제 이름마저 빼앗겼던
우리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 겨레에게 해방을 주시려
자주로 존엄높은 삶을 주시려
수령님은 만고풍상 헤치셨습니다
열네살에 고향집을 나서시어

눈보라까지도 이 강산을 물어뜯던
망국의 그 엄동설한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비장한 맹세로 넘으신 압록강

아버님 물려주신 두자루 권총
가슴에 깊이 품어안으시고
결연히 나서시었던 항일전의 길
침략자 일제 쳐물리치시며
백두광야 설한풍 헤치셨습니다

그 생각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100여년전 우리가 지금처럼 강했다면
감히 넘겨다나 보았겠습니까
섬나라 쪽발이들이
5천년력사국인 우리 조선을

수령님의 피어린 자욱자욱
혈전만리 항일의 20성상은
오늘도 우리를 깨우칩니다
—무장에는 무장으로!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의 힘으로!

그 철의 진리로

수령님은 일떠세우셨습니다
제국주의가 판을 치는 이 지구우에
인민이 주인된 나라
존엄높은 주체의 조선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해방된 조국땅 평천리에
수령님 병기공장 세우실 때
오, 그것이 그것이
선군총대의 고향이 될줄

지금도 인민은 못 잊습니다
1962년 12월
몇날째 거둬 열리던
우리 당 제4기 제5차전원회의를

그때 수령님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습니까
세계제대 꿈꾸는 미제의 책동으로
지구 곳곳에서 일어번지던 동란들
이내 온 세계를 휩쓸 거대한 정치해일
그속에서 우리 조선 굳건히 지키
시려

런 나홀
인류력사를 거슬러 오르시며
인류의 미래를 훑아보시며...
살을 찌르는 동지추위속에서 새벽토록
정원의 밤길도 거니시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위원동무들
우린 벌써 여러날째
같은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데...

사실 경제국방병진로선이라는것을
말로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다
손을 들어 찬성하는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지지리도 못살던 우리
인민이
이젠 잘살게 됐는가 했는데...
그래서 결심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피로운것입니다

그리도 아프신 마음으로
수령님 채택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로선!
그것은 자주와 존엄의 길
우리 민족의 백전백승의 길이었습니다

—한손에 총을
다른 한손엔 낫과 마치를!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그 길이 아니었다면
자위적핵보유국으로 우뚝 솟은
오늘의 우리 조선 생각할수 있겠습
니까
우리가 큰 나라들을 믿고
잠시라도 허리며 풀었더라면
우리를 덮쳤을것입니다
침략자 미제 날강도무리가

감히 미제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경제, 국방—두줄기 레우우에
병진행렬차를 올려세우시고
그 기관차를 몰아
수령님은 가고 또 가셨습니다
초소길, 농장길과 공장길...

우리의 전진 가로막으려
발악하는 침략자들의 책동
수령님은 무자비하게 짓몽개셨습
니다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그 불굴의 배짱과 담력으로
조국을 금성철벽으로 다지시며
인민의 행복 꽃피우시며
수령님 평생토록 지새신 밤
맛고맛으신 세월의 눈비바람
인민은 영원히 못 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경사, 모든 기적이
수령님 자욱자욱 열어주신
그 길우에 꽃피나는것이어서
꽃이 피도 열매가 주렁저도...
인민들은 수령님을 생각합니다

보셨습니까, 수령님!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수령님 마련해주신 자력갱생의 터전
에서
자력자강의 힘을 떨치며
우주로 치솟던 조선의 위성
자랑찬 《광명성-4》호를

최상의 국력 떨친 위성의 자리길은
수령님 그어주신 길입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령님!
평양을 찾아온
전 미국대통령에게 하시던 말씀

—우리는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재를 받으며 살아왔지
제재를 받지 않은적이 한번도
없다
미국도 제재를 하고
그에 추종하는 일본과 다른 나라
들도
우리에게 제재를 가했다

지금까지 제재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별일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제재를 더 받는다고
우리가 못살아갈줄 아는가
미국이 우리 나라에 제재를 더
해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는다

정말로 끄떡하지 않았습니까
시련이 겹쌓이던 고난의 행군때에도
미제와의 핵대결전에서도...
수령님 심어주신
그 자력갱생의 정신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백전백승합니다
김정은원수님
새 세기에 이어주신 수령님의 길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
그 불패의 길을 따라

원수들 제재의 사슬 아무리 조여도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
스키장, 승마구락부, 물놀이장...
어디 가나 인민의 웃음소리 랑랑하고
황금산, 황금해...
인민의 행복이 날마다 꽃됩니다

원수들은 우리의 위성운반로케트도
탄도미싸일이라고 우겨대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 해도
끄떡없습니다, 어렵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소탄시험 걸고들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
유엔거수기들을 동원하여
그 무슨 초강도제재나발 췌쳐도

천출명장 원수님 모시여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보십시오, 수령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전진 막을수 없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그런 시대는 영영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들
우리를 굴복시켜보려
지금도 남녘땅에 전쟁연습 벌려놓고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
온갖 핵장비들 끌어들였어도
우리앞에서는
종이범입니다, 물거품입니다

날마다 원수들 벌벌 떨니다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
신형대구경방사포
소형화된 핵탄두...

원수들을 전률시키며
우리는 세기를 주름잡습니다
천리마가 만리마로 나래펼치고
10년을 일년으로 주름잡아
강산을 변모시키며

하늘엔 우리의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선 우리의 지하전동차가 달
립니다
보십시오, 수령님!
적대세력이 아무리 제재와 압살 떠
들어대도

인민의 새로운 보금자리
러머거리가 하늘높이 일떠섭니다
아, 자주로, 선군으로
온 누리에 조선민족의 존엄 떨치시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원수님 모시여
더욱 빛나는 태양절
수령님 업적 천추만대 영원합니다

이제 세계는 보게 될것입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의 길
따라
자강력으로 강성국가의 대문 열어
제끼고

우리 민족끼리로 조국을 통일하여
만방에 길이 빛날 이 나라 조선을!

두자루의 권총이 무성한 총대숲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총대로
민족자주위업을 개척하시고 승
리에로 이끄신 절세의 애국자,
강철의 령장이시다.

일찌기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아버이수령님께서 아버님으로
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
총은 일제와는 무장으로 항전
하여야 하며 대를 이어 싸워
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한다는 심오한 뜻
이 어려있는 고귀한 유산이었
다. 두자루의 권총을 밀천으
로 삼아 무장투쟁의 길에 나
서신 수령님께서 반일인민유
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대전을
선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
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무장대
오를 거느리시고 만주광야와
백두밀림을 주름잡으시며 일
제의 100만대군을 격파하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
하시였다.

허나 삼천리강토에 뚫어번지
던 조국해방의 기쁨은 《해방
자》의 랄을 쓰고 남조선에 기
여든 미국과 그와 결탁한 민
족반역무리들의 부침야망으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시시각
각 전쟁접경으로 치닫는 엄중
한 정세는 무엇보다도 국방
력을 강화하여 침략전쟁에 대
처할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

을 요구하고있었다.
새 조국건설의 첫시기에 벌
세 평양의 평천벌에 병기공장
터전을 잡아주시고 자위적국방
공업의 기술을 마련해주신
아버이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로고는 우리 인민
이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
라고 할수 있는 조선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떠벌이던 미국
을 타승하는 세계적인 군사적
기적을 안아올수 있게 한 원
천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있어서 총
대중시, 군사중시는 국가건설
과 활동에서 추호도 드릴수

없는 근본원칙, 전략적로선이
였다.
하기에 경제건설과 국방건
설의 병진이라는 위대한 전략
적로선을 내세운 공화국은 강
력한 총대로 나라의 안전과 혁
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
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힘있게 다그쳐올수 있
었다.

지난 세기 60년대와 70년
에 우리 공화국이 《푸에블
로》호사건과 《EC-121》대
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
건을 비롯하여 미국이 도발한
침략도발책동들을 걸음마다 분

쇄할수 있는것은 군사를 국사
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군력강화에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위업을
이으시어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였기에 공화국은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빛나는 승리의
전통을 떨칠수 있었고 오늘
은 또 한번의 백두령장을 모
시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전략
잠수함 탄도탄과 신형대구경방

사포, 수소탄, 대륙간탄도로케
트와 같이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현대적무기도 척척 만들
어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고있는것이다.

지난해 12월 평천혁명
사적지를 찾으신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빈터우
에서 자립적국방공업의 기초
를 마련해주신 우리 수령님은
만고의 명장, 만고의 명인,
만고의 대성인이시라고 하시
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
불휴의 로고속에서 만들어진
한자루한자루의 총이 오늘
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수
호하는 총대숲으로 무성해졌
으며 우리 수령님께서 이곳에
서 울리신 력사의 총성이 있
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
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
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하시였다.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공화국은 앞으로도 그
어떤 적대세력도 감히 범접할
수 없게 총대숲을 더욱 무성
하게 가꾸며 자위적핵억제력
을 억척같이 다져 민족의 존
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
며 통일강성변역을 이룩할것
이다.

옥철응



잊을 수 없는 그날을 더듬어

내 나이 어느덧 70에 가까와오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36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보고에서 제시하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접하던 그날의 격동이다.

그 력사적인 당대회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조선민족의 지향과 리익을 반영한 새로운 획기적인 통일강령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창립방안과 련방국가의 10대시정방침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한다며,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 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하시던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제시, 이는 수십년을 헤아리는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기

를 마련해준 사변이었다. 당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투쟁은 새로운 양양기를 맞이하고있었다. 남조선에서 《유신》독재가 종말을 고하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세차게 벌어지고있었다.

조성된 정세의 추이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을 우리 겨레에게 안겨주시였던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라는것을 밝혀주시면서 통일국가 실현해야 할 10대시정방침도 제시해주었다.

10대시정방침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며,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합작과 교류를 실시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며,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고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고 전국적범위에서 교통, 체신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며,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며 민족련합군을 조직하고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위하며,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옹호하고 처리하고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며,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에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는것이다.

하기에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수천명의 각계층 대표들과 재일조선인족하단, 세계의 수많은 대표단과 대표들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새로운 통일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여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던것이다. 대회참가자들만이 아니라 온 겨레가 획기적인 조국통일방안을 받아안고 기쁨과 흥분을 금치 못하였으며 이 방안을 리행하여 조국의 자주적통

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결의를 다지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가장 옹호바른 설계도를 그린 획기적인 통일방안, 조국통일3대헌장의 주요내용의 하나로 온 겨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70년이상 분렬의 뼈아픈 고통을 겪으며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에서 살아온 북과 남의 겨레가 평화적으로 하나로 합치는 길은 련방제방식의 통일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 진리를 이미 오래전에 천리혜안의 예지로 꿰뚫어보시고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어버이이시고 조국통일의 찬란한 태양이시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민족의 성도 평양에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대히 열리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이 력사적인 대회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수행의 길에서도 뜻깊은 사변적인 날로 기록되게 될것이다. 벌써 온 겨레와 세인의 기대 어린 시선들이 7차당대회로 모아지고있다. 나의 마음도 력사적인 그날의 당대회장으로 달려가고있다.

정복실

뜻깊은 4월의 나날들에

지성 어린 초대장

주제37(1948)년 4월초 어느 날이었다.

일군들은 밤늦도록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할 남조선대표들에게 보낼 초대장을 쓰고있었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는데 문기척소리와 함께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뜻밖에 아버지수령님께서 방안에 들어서시는데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이 만든 초대장을 하나하나 보시며 이 초대장은 우리가 남반부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에게 처음으로 보내는 공식초대장인것만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초대장을 쓰는 사업이 회의성과와 직접 관련되어있는것만큼 철대로 실무적인 일로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다정히 자리에 앉히시며 어서 초대장을 계속 쓰라고 이리시면서 그들이 쓰는 글자의 배열과 간격, 글자획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었다.

북으로 한자한자 정성담아 쓴 글밭들마다에 애국의 뜻이 흘러넘치는 초대장은 남조선 각계 인사들에게 전달되자마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남북련석회의 초대장! 이것은 남조선대표들에게 있어서 회의에 참가해달라는 단순한 초청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후 갈길 몰라 헤매이던 고향길을 인도하는 길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준 구원의 손길이었다.

뜻깊은 탄생일에도

주제61(1972)년 4월 15일 온 나라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온 나라에 경축의 물결이 세차게 굽이치는 이날에도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조국통일에 대한 생각, 남녘인민들에 대한 생각이 뜨겁게 자리잡고 있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축원의 인사를 삼가 올리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남녘겨레들이 보고싶

히 말씀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다정히 자리에 앉히시며 어서 초대장을 계속 쓰라고 이리시면서 그들이 쓰는 글자의 배열과 간격, 글자획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었다.

북으로 한자한자 정성담아 쓴 글밭들마다에 애국의 뜻이 흘러넘치는 초대장은 남조선 각계 인사들에게 전달되자마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남북련석회의 초대장! 이것은 남조선대표들에게 있어서 회의에 참가해달라는 단순한 초청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후 갈길 몰라 헤매이던 고향길을 인도하는 길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준 구원의 손길이었다.

다고, 조국이 통일된 후 온 겨레가 모두 함께 모이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사람들은 그이께서 지니신 숭고한 민족애와 절절한 통일념원과 의지앞에 눈시울을 적시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온 민족을 격동시키고 온 세계를 놀래운 력사적인 조국통일3대원칙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본사기자

아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겨레에게 남기신 가장 고귀한 통일유산의 하나는 조국통일3대헌장이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

지금으로부터 44년전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근본초석이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우리 겨레의 통일념원과 의지를 집대성한 이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받아들일수 있는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인것으로 하여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해왔다.

자주의 원칙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며 민족통일운동의 출발점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요구와 근본리익에 맞게, 우리 민족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의 분렬은 전적으로 외세가 강요한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이룩하자면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여야 한다.

나라의 통일문제는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외세와 그에 추종한 호전세력의 화약내나는 북침전쟁연습, 무력중립책동이 그칠새 없으며 그로인해언제 군사적충돌이 일어날지 모를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온 겨레는 전쟁을 돌아오는 내외호전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결정적 담보이다.

통일을 이룩하자면 통일을 바라는 모든 민족성원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단결된 힘은 강하며 온 겨레의 하나된 힘, 노력에 의해서만 통일의 대문이 열릴수 있다.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

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인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로서 여기에는 조국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있다.

이처럼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되고 그 진리성이 검증된 과학적인 통일헌장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해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숙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앞으로도 조국통일3대헌장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발표로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것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간고한 투쟁에서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 민족이 것처럼 바라는 통일도 평화와 번영도 이룩될수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에 따라 구체적방법은 달라질수 있어도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없다.

현시기 남조선보수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전쟁소동과 반공화국괴립압살책동에 미친듯이 매여달려도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통일대진군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조국통일3대헌장을 불멸의 통일대강으로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에 통일의 밝은 새 아침은 반드시 오고야 말것이다.

오영철

민족의 변함없는 통일대강



통일유훈을 가슴에 새기고

뜻깊은 태양절의 이 아침 아버지수령님이 더욱 못견디게 그리워진다.

한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외세의 위해 민족이 당하는 분렬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었고 그 길에서 민

족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오늘도 온 겨레가 가슴마다에 소중히 새겨안고 통일투쟁의 길에서 기치로 내세우고있는 조국통일3대헌장도 다름아닌 우리 수령님께서 자주와 민족단합의 넋과 경륜으로 마련하시어 겨레에게 안겨주신것이다.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

정적이다.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안의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민족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참사 한국철

민족대단결에 바치신 고귀한 희생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한평생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애국애족의 숭고한 사상을 안으시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한몸에 안아 보살펴주시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었다.

해방후 미국과 그 앞잡이들이 《단독선거》를 획책하고있던 엄중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었다. 련석회의는 정견과 계급적립장이 서로 다른 정

당, 사회단체들도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능히 단결할수 있으며 민족의 대단합으로 민족의 분렬을 막고 자주적인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

이처럼 조국이 분렬된 첫시기부터 온 민족을 하나로 묶어 세워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민족자주통일의 한길로만 내달려왔다. 민족대단결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는 천년만년이 가도 우리 민족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우리 천도교청우당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 원수님의 령도따라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국가를 일떠세우는데 자신들의 작은 힘이나마 깡그리 바쳐나가겠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책임부원 최석현

홀려온 역사를 돌아봐도 그 령고 현시대에 와서도 그 어느 나라나 민족치고 미래에 대하여 논하지 않은적이 없다.

미래의 10대고도군사기술, 미래의 네트워크사회, 미래의 농업발전추세와 도시건설방향, 미래의 에너기자원, 미래의 화성탐사계획 등 정치, 경제, 군사와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 인류는 지금도 자신들의 앞날과 전망을 그려보고있으며 설계하고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미래에 대하여 리상과 꿈으로 공상할수 있고 예측은 할수 있어도 장래에 대하여 확실성있게 장담하지는 못할것이다.

하기에 어떤 사람은 미래라는것은 아름다와도 잡을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 미래를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신만만하게 마중가는 나라가 있으니 다름아닌 공화국이다.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락관과 환희로 가슴부풀고있다.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더 부흥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꿈과 희망, 확신이 모두의 가슴에 뿌리내려져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공화국에서는 환희로운 미래

조선은 찬란한 미래에로 간다

를 자기 힘으로 창조하는 이 구조가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은지가 오래다.

그래서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미래상점현지지도도 사람들의 특별한 이목을 끌었다.

2012년 1월 이곳 상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상점에 모시지 못한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난다고, 장군님의 념원대로 상점운영을 잘하자고 하시면서 상점의 이름을 《미래상점》으로 명명해주시었다. 그 상점이 본래보다 더 크면서도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철저히 구현된 현대적인 상업봉사기지, 공화국의 상업봉사부문의 본보기로 다시 꾸려진것이다.

이날 매장들마다에 우리가 만든 화장품, 일용품, 전자제품, 식료품을 비롯한 갖가지 질좋은 상품들이 짝 차았는데 보기만 해도 호뭇하다고 환하게 웃으시던 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선 미래상점이 정말 멋있다고, 운영준비를 완벽하게 갖췄듯만큼 하루빨리 상점문을 열어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인민들도 찾아와 마음껏 상품을 사가도록 하게 하라고 지시

하시었다. 미래상점에 대한 그이의 현지지도는 어느 한 봉사단위에 대한 현지지도만을 뜻하는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가슴뜨겁게 안겨오는것은 인민들이 만복을 누릴 찬란한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앞당겨오시려는 그이의 불같은 마음과 뜻과 의지이다.

돌이켜보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민족자주위업은 나라와 인민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피 어린 항일대전의 나날 언제나 해방된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시며 눈보라만리, 혈전만리의 길을 헤치시었다.

전투에서 로획한 조선사과를 보시면서도 해방된 조국에서 살게 될 후대들을 생각하시며 아동단원들에게 보내주시었고 어머니의 체취가 어린 소중한 돈 20원도 추위에 떨던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을 위해 서슴없이 내놓으시었다.

조선에서 미국에 의해 전쟁의 불길에 타버리던 나날에도 승리할 래일을 그려보시며 평양시북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신 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한평생

승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 행복의 노래를 총대로 지키시려고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었고 《미래를 사랑하라!》는 구호도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심어주시었으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사랑의 풍우유도 매일 보내주도록 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미래관을 그대로 체현하신 원수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을 더 좋고 더 아름다운 미래에 이끌어가게신다. 과학자들을 위해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현대적인 새 거리를 일떠세워주시고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해주시었으며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도 누리도록 해주시려고 행복의 창조물들을 도처에 일떠세워주시었다. 원수님 가꾸가시는 사회주의문명국은 겨레의 오랜 꿈과 리상이 실현된 나라, 인민들모두가 세상만복을 누리며 살게 될 행복의 무릉도원이다.

지금 위인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조선은 만리마의 속도로 행복의 미래에 앞당겨오고있으며 누구나 주인이 되어 인간의 자주적존엄과 행복을

누리는 조선의 현실은 인류의 밝은 미래로 세인의 동경을 모으고있다.

행성에 어둠을 강요하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조선의 현실,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는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수많은 어용보도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조선을 악랄하게 비방하고 《인권》이냐 뭐냐 하며 갖은 비방을 해대고있다. 지금 공화국에 가해지는 전례없이 악랄한 제재와 압박, 군사적위협소동도 본질에 있어서 이 나라 인민들에게서 소중한 미래를 앗아가기 위한것이다.

이 땅에서 퇴성을 러친 수소탄을 비롯한 정의의 핵은 조선의 미래, 민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것이다. 미국의 침략위협이 날로 가중되는속에서 자위의 핵이 없다면 행복의 높은 물론 인민의 참다운 미래도 없고 조선민족의 통일되고 번영하는 밝은 미래도 올수가 없다.

그래서 조선은 싸운다. 제재와 압박에 자강력의 기치로 맞서고 침략위협에 자위적억제력의 끊임없는 강화로 대응하며 날마다 전변의 새 역사를 펼쳐가고있다. 지금 벌어지는 조

선과 적대세력간의 대결전, 이는 정의와 부정의와의 싸움이고 인간사랑과 인간증오와의 싸움이며 미래를 대표하는 세력과 낡고 썩어빠진 어두운 과거를 고수하려는 역사의 반동들과의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싸움이다.

이 마지막싸움에서 누가 이길것인가. 조선인가, 적대세력인가. 자강력인가, 제재인가.

승리는 미래를 체현하고 미래를 위해 싸우는 공화국에 있다. 미래가 있기에 더욱 강하고 날마다 힘과 기백이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조선이다.

희세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조선민족의 미래는 얼마나 더 밝고 찬란한것인가.

력사의 그 어떤 도전도, 원수들의 그 어떤 발악도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내달리는 조선인민의 투쟁속도를 지연시키지 못할것이라는 선군령장의 승리의 신심이 넘친 이 선언을 세계는 새겨들어야 한다. 《북조선공피》를 떠드는자들은 이 땅에 날마다 솟구치는 눈부신 미래의 실체들을 와서 제논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어느것이 망상이고 어느것이 현실인지를 똑바로 알게 될것이다.

조선은 역사의 광풍을 맞받아 찬란한 미래에로 간다.

본사기자 리경월

수기 내 인생의 가장 뜻깊은 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은 내 인생에서도 참으로 잊을수 없는 뜻깊은 운명전환의 날이다.

28년전 바로 이날에 나는 저주로운 남조선사회를 박차고 공화국의 품, 태양의 품에 안긴것이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할때면 내 삶의 참된 긍지와 행복을 안겨주신 아버지주석님에 대한 그 리움이 더욱더 사무쳐오군 한다.

1988년 4월 15일, 나는 공화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손님들이란 비행기가 지금 공화국의 하늘을 날고있다는 안내원의 말에 나는 《아!》하고 탄성을 터치었다. 얼마나 안기고싶었던 내 삶의 자애로운 품인가.

시창아래로 바둑판처럼 짜여진 규격포전들과 사방으로 뻗어간 판개수들로, 잘 정리된 간석지들이며 논밭을 가는 트랙터들이 시야에 안겨왔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흔

들며 동포애의 정으로 뜨겁게 맞아주었다.

나는 사진기의 셔터를 연방 누르고 마이크를 들이대는 기자들앞에서 오랜 숙망이 이루어진 심정을 이렇게 표려했었다.

《오늘은 내가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난 날이다. 미국의 식민지인 이남에서 나의 반생은 너무도 허무하게 가버렸다. 이남땅에서 나에게 차례진것은 식민지인테리의 설움과 고통뿐이었다.

외세에 억눌려 살아야 하고 군부독재에 의해 인권마저 무참히 짓밟혀야 하며 교단에 서서도 바른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는 이남의 기막힌 현실에 나는 치욕감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이남당국자들의 반공선전을 교육자의 량심으로 음미해보면서 10여년 전부터 이북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어왔으며 이북 출판물들을 탐독하는 과정에 민족의 기상이 약동하고 룡성번영하는 이북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특히 아버지주석님께서 언제나 민중속에 계시면서 근로하는 민중에게 은정깊은 사랑을 베푸시는 소식을 접하면서 민중중심의 정치를 펴시는 그이의 고결한 품도와 덕망에 깊이 탄복할수록 더욱 북을 동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진보적인류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인류공동의 대경사로 성대하게 경축하고있는것을 보면서 절세위인의 품에 하루빨리 안기고싶은 심정을 누를길 없었다.

하여 나는 위대한 주석님의 탄생일을 이북에서 맞을 결심을 품고 3월 말에 이남땅을 떠나 오늘 이처럼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정말 이 현실이 꿈만 같다.》

정말 그렇다. 사람 못살 남조선사회에서 인생전환의 결심을 내린 나는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안기는 날자를 어떻게 하면 가장 뜻깊게 정할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그날을 4월 15일로 정하기로 결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일인 4월 15일에 평양에 가닿자! 만민의 대표들이 그이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노래와 춤을 안고 평양을 찾는 그때 평양에도 착하여 태양의 품에 안기자.》

이렇게 결심하니 심장이 더욱더 뛴뛴했다. 내가 이런 결심을 내린데는 의거입복날을 뜻깊은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로 정함으로써 수령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경모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세상사람들에게 보여주고싶은데 있었다.

물론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 뜻밖의 일이 생길수도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나의 결심은 확고했다.

마침내 1988년 3월 김포 비행장에서 려객기에 몸을 싣고 남조선을 떠난 나는 여러 나라들을 거쳐 드디어 4월 15일 공화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는데 성공하였다.

바로 그때부터 나의 새 삶이 시작되었다.

태양절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겨레에게 운명전환의 기쁨과 환희를 안겨준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이다.

이 뜻깊은 날이 있어 나도 있고 자주와 존엄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똑같은 신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국력을 최상최대로 떨쳐가는 커다란 기쁨과 환희속에 태양절을 맞고있다.

나는 앞으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애국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여생을 깡그리 바쳐가겠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 리우갑



단상 꽃이 만발, 웃음이 만발

4월이다. 봄을 맞아 날은 따스해지고 어디 가나 꽃이 만발하고있다.

평양의 개신문에서 만수대언덕을 향해 올라가노라면 길양옆에 가로수 너도 삼은 살구나무들에서 꽃이 하얗게 피어 봄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해준다.

그옆의 모란봉에도 지금 연분홍진달래가 곳곳에 활짝 피어있고 노란 개나리꽃들이 사람들을 어서 오라 《손짓》하고있다.

화창한 이 4월. 꽃만 웃는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웃고있다. 꽃의 아름다움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수 없다. 생활의 즐거움이 없다면, 래일에 대한 꿈과 랑만이 없다면 어찌 웃음이 꽃피랴.

이해에 찾아온 봄은 레사로운 봄이 아니다. 적대세력들의 류례없는 제재와 위협소동이 그칠새없는속에서 찾아온 봄이다. 제재는 가혹하고 핵무기까지 휘두르는 군사적공같은 악착스럽지만 이 땅에선 봄이 오고 산과 들엔 꽃이 만발하고있다. 이것을 어찌 자연의 봄이라

고만 하랴.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며 이 나라 사람들이 환희속에 맞는 기쁨의 새봄이다.

겨울이 아무리 모질어도 봄이 오듯이 제재와 압박이 아무 리 가혹해도 조선의 봄, 이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깃드는 소중한 환희의 봄을 막을수는 없었다.

지금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얼굴들에는 기쁨과 랑만의 웃음이 한껏 어리어있다.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밤늦도록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새 학기가 시작된 각급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배움의 글소리가 랑랑히 울려 퍼지고있다. 어느 공장을 가보나, 어느 기관에 들러보아도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다채롭고 즐거운 체육유희오 수많은 외국의 예술단체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참가한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의 공연들이 구름장마다에서 성황리에 벌어지고있다. 얼마전에는 미래의 황홀한 거리로 내세워도 손색이 없을 려

명거리준공식이 진행되어 평양은 건설의 열기로 후끈 달아있다.

제재와 압박을 박차며 창조의 노래, 환희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있는 평양.

그래서 거리거리에 피어나는 꽃이 더 아름다와 보이고 이해의 봄이 류다르게 더욱 따스하게만 느껴진다.

지금 화창한 이 계절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만경대를 찾아가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뵙고있다. 젊은이도, 아이들도, 늙은이들도.

조선의 4월은 태양절로 더욱 빛나는 봄계절이다.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절세위인을 모신 4월의 봄이 있어 해방의 봄이 오고 인민의 새봄이 찾아왔으며 창조와 변혁, 승리의 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왔다.

4월의 봄과 함께 더욱 활기를 띠는 평양. 조선은 화창한 이 4월을 영원히 가슴에 안고 미래에로 폭풍쳐내달린다.

김연희



제18차 김일성화축전 개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제18차 김일성화축전이 개막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워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 따라 주체조선의 만리마시대 정신을 창조하며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고있는 군대와 인민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봄명절을 성대히 경축할 일념을 안고 태양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데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축전이 열리게 될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에는 공화국기와 축전기발들이 게양되어있었으며 《제18차 김일성화축전》, 《태양절경축》이라는 글발과 축전마크가 나붙어있었다.

주체조선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시며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축전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무궁한 번영을 축복하여 만발한 김일성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 무력,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80여개 단위와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

는 경모의 정을 담아 활짝 피운 수만상의 김일성화를 안고 왔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해외 동포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외국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 불멸의 꽃 보급후원회 회원들의 뜨거운 지성이 어린 위인칭송의 꽃들이 축전장에 전시되었다.

축전개막식이 13일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개막식은 시작되었다.

김창도 조선 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총정의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제18차 김일성화축전을 성대히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김일성화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비범한 령도와 숭고한 덕망으로 자주시대를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만민의 열화같은 총정에 떠받들려 피어난 위인칭송의 꽃이며 천만군민에

게 커다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귀중한 국보로 빛을 뿌리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축전이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의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정의 70일전투 철야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제18차 김일성화축전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밤방 히엔드라스포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제18차 김일성화축전 개막식에 참가하게 된것을 커다란 공지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김일성화를 상징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번영과 행복, 협력과 굳건한 친선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은 《불멸의 꽃 축전기》 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태양의 꽃, 위인칭송의 꽃으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태양민족의 공지를 안고

나는 이번에 조국을 방문하여 제18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찾았다.

축전장에 만발한 태양의 꽃 김일성화의 모습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세계적으로 화초전시회나 화초박람회들이 많이 조직되고있지만 김일성화축전처럼 한가지 꽃으로 온 축전장을 꽃바다로 일색화하는 전시회는 없다고 본다.

태양의 꽃 김일성화는 보면 볼수록 매력과 애착을 가지게 하는 아름다운 꽃이다.

원래 아름다운 꽃으로 알려진 란초과 식물의 꽃들 가운데서도 진분홍보라색의 꽃잎과 꽃모양새가 정결하고 우아하면서도 고상한 정서를 자아내는 꽃이 바로 김일성화이다.

아름다운 꽃이 아니다. 김일성화는 주체의 해발로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태양의 꽃이며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위인칭송의 꽃이다.

조국인민들과 진보적인류가 태양의 꽃 김일성화를 정성껏 가꾸고 해마다 평양에서 성대한 꽃축전을 펼치고있는 사실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나는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조선민족의 무한한 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꽃, 부강번영할 통일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하는 태양의 꽃 김일성화를 더 잘 가꾸겠다.

재중동포 김 지은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태양칭송의 메아리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성대히 개막

불세출의 위인, 인류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심이 태양절과 더불어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있는 가운데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축전개막식이 1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식장 무대중심에는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라는 글발과 축전마크가 나붙어있었다.

개막식에 앞서 이번 축전에 참가한 예술단체들이 소개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시향가》의 은은한 선율속에 전광화면에 지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들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예술인들의 공연모습과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눈부시게 발전하는 주체예술의 면모를 보여주는 화폭들이 펼쳐졌다.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박춘남문화상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었다.

그는 태양절을 경축하여 성대히 열리는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외국의 벗들과 해외동포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세기를 이어오는 축전의 리념과 성격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며 적극 협력하여주고있는 친선적인 여러 나라 정부와 문화예술계에 사의를 표하였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위인칭송의 송가들과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들로 환희로운 무대를 펼쳐놓으며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친선과 연대성, 교류와 협조를 추동하고 인류문화발전전에 기여하여온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축전참가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과 예술발전모습을 긍지높이 보여주고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며 서로의 귀중한 성과와 경험을 나누게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축전의 나날 참가자들

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만리마시의 속도로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벽천현실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직접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축전이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지향에 부합되게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개막을 선언하였다.

《조국찬가》 노래선률이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 나라와 해외동포,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기발을 게양하였다.

다음으로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개막식에서는 우리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축전은 4월 17일까지 평양의 여러 극장들에서 조별 및 단독공연, 련환공연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사기자



얼마전 평양면옥에서는 제21차 태양절로리축전이 진행되었다.

로리과학기술성과전시회와 명로리 및 지방특산물로리전시회, 지정보리전시회, 로리사들과 접대원들의 기술경연 및 시범출연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로리축전에는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의 60여개 단위들이 참가하였다.

여러 지방들과 단위들의 특성과 과학성, 예술성을 잘 살려 만든 1 200여가지의 특색있는 로리들과 음료들, 7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출품되었다.

이번 로리축전에서 참가자들의 이목을 끈것은 로리과학기술성과전시회였다. 우류관의 김현숙, 김창경, 김명화, 김춘영로리사들이 만들어 내

놓은 《뱀장어뼈완자》, 《철갑상어간묵》, 《철갑상어가죽씨앗튀기》, 《오리떡볶음》, 《돼지대가리떡》은 발명증서, 창의고안증서를 받은 것들이다.

철성각의 조은경로리사는

락원백화점에서 출품한 막걸리는 생산원가를 30% 낮추고 보관기일을 훨씬 늘일수 있게 한것으로 하여 관심을 모았다.

로리축전에는 가치있는 학위논문들과 로리기술도서들, 특

바치시며 현지지도의 길에서 허물없이 평범한 가정의 장맛도 보여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이 그리워진다라고 하는 정영순 창광종합식당 부원의 이야기는 무척 감동적이었다.

이밖에 로리축전에서는 향만루대중식당, 양각도국제호텔, 평양시 중구역종합식당 등 여러 단위 로리사들과 접대원들의 시범출연도 있었다.

양각도국제호텔 오영호로리사의 연어치즈구이만들기, 평양호텔 김수련로리사의 닭알푸조볶음만들기, 청류관 전선향로리사의 료두묵랭채만들기, 향만루대중식당 장명수로리사의 닭다리구이, 평양시 모란봉구역종합식당 김경순로리사의 메기꽃추출입만들기과정을 지켜본 많은 참관자들은 《이번에 참 많은것을 배웠다》, 《로리를 두고 왜 과학이라고 하는지 잘 알았다》, 《로리사들이 마치 조각가 같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조선로리협회 조희국서기장은 로리축전에 참가한 그 어느 단체에서나 태양절을 맞으며 자기 단위의 특성을 살려 새롭게 창안완성한 로리들을 내놓았을뿐 아니라 어디서나 쉽게 만들수 있는 대중음식들을 전 시한것으로 하여 음식문화발전을 추동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고영숙

화 장 한 4 월 에 민족음식의 향취를 풍기며

전국 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에서 메달과 증서를 수여받은 《타조고기훈제를 위한 훈연액제조와 제품가공방법》을 내놓았으며 장절임명수로 소문난 평양시 서성구역종합식당의 황명실로리사는 속성방법으로 만든 여러 종류의 장 절임들을 내놓았다.

화편집물들도 출품되었다.

해당 단위들에서 새롭게 완성하여 봉사에 받아들인 로리 및 식료가공품, 과학기술성과 등록증과 창의고안증서들, 로리가공기술보급에 리용되고있는 로리기술도서들과 특화편집물 등 전시된 성과자료들은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속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게 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을 리용한 새로운 기초식품개발성과자료들은 참관자들에게 음식문화도 자기 식으로 발전시켜야 더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귀중한 진리를 가슴속에 새겨주었다.

자기 단위에서 개발 완성한 《련화》 된장에 대한 사람들의 호평을 들을 때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평안북도 평안북도 가 너먼애 응팔레

지난 12일 남조선의 박근혜가 《국무회의》라는 것을 벌려놓았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야 까옥소리 밖에 나올것 없다고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박근혜의 입에서 고운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였다.

현실적으로 이날 박근혜는 치떠진 눈을 표독스레 굴리며 이런저런 황설수설끝에 그 누구의 《도발》이니, 《단호한 대처》니 하며 동족대결의 독설을 내뱉었다.

날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강대성에 일흔이 빠져 분별없이 날뛰는 청와대창녀의 가소로운 양탈질이 아닐수 없다.

알려진것처럼 지금 공화국에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안보리사회의 《대북제재결의》를 자력자강의 불길로 태워버리며 날에 날마다 혁신과 전변의 희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자위의 핵탄이 공개되고 남조선의 작전지대안의 대상물들을 정조준타

격할수 있는 신형대구경방사포의 위력시위도 있었으며 미국망도 불태워버릴수 있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대출력발동기 이상분출시험소식도 화면을 통해 세계에 파시되었다.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강의 지하전동차는 썩썩 달리고 공장들이 만가동의 동음을 울리며 회한한 려명거리작공식까지 벌어져 말그대로 적대세력들을 혼비백산케 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그 무슨 《독자제재》니 뭐니 하며 공화국을 어찌보겠다고 북남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해버린 대결광녀의 독단과 망동으로 피해를 본것은 오히려 애매한 남조선 중소기업들과 그와 연관된 기업들, 그에 의거하여 근근히 살아가던 수천수만의 로동자들과 그 가족들뿐이다.

동족을 압살해보겠다고 외세와 야합하여 미친듯이 벌리는 북침핵전쟁연습소동으로 불안해진 외국기업들이 썰물처럼 남조선에서 빠져나가 그렇지 않아도 엉망진창인 경제를 더욱더 파산으로 몰아가고있다.

제가 관 함정에 제가 빠진다고 동족을 압살해보겠다고 박근혜가 힘들여 관 함정에 남조선이 통제되고 빠지는 격이 되고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 무슨 뽕죽한 수가 박근혜에게 있는것이 아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처지에 빠진 박근혜가 다 께진 북통을 두드리며 《도발》이니, 《단호한 대처》니 하고 신경질이 나서 떠들지만 그것은 도살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된 청와대 폐타의 숨넘어가는 소리에 불과할따름이다.

박근혜는 동족대결의 양탈질을 하면 할수록 청와대를 통채로 무덤속에 처넣으려는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복수의 기상이 천백배로 더욱 커진다는것을 명심하고 더러워질대로 더러워진 입건사를 잘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리어금

며칠전 남조선보수패당은 해외에 나가있던 공화국주민들을 상대로 《집단지탄발》이라는 반공화국대결광대국을 벌려놓았다.

보수패당은 가소롭게도 이 대결광대국이 유엔 《대북제재결의》리행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이고 공화국에 대한 북주민들의 《회의와 남조영》인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직접 각본을 쓰고 정보원을 비롯한 온갖 떨거지들이 연출한 전대미문의 집단적인 유인람치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오래전부

터 해외에 나가있는 공화국의 주민들을 목표로 삼고 집요한 추적을 벌리며 그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해왔는가는 잘 알려져있다.

재카나다목사 림현수와 같이 《친북목사》의 탈을 씌운 어중이떠중이들을 동원하여 공화국의 애 어린 처녀들과 주민들을 남조선과 미국, 캐나다로 끌고간것도 다름아닌 남조선보수패당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이번에 또다시 공화국주민들을 유인람치한것은 국제사회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는 공화국의 지위와 영상에 먹칠을 하고 천만군

민의 일심단결을 파괴해 보려는 어리석은 흥심의 발로이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들, 랍치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남조선보수패당의 대결모략당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극악한 집단람치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자들을 전원 즉각 돌려보낼것을 요구하고있다.

입만 벌리면 그 무슨 《인도주의》와 《인권》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 온 남조선당국이 10여명의 공화국녀성들의 인권을 랍폭하게 짓밟고 피해를 막는 반민족적, 반인도주의적범죄를 감행한것

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특대형범죄행위이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때에 발생한 이번 유인람치행위는 가혹이나 침에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엄중한 지경으로 몰아가는 중대사건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친인공노할 유괴람치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랍치피해자들을 즉각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용납할수 없는 특대형범죄행위

얼마전 남조선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일대의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뜻밖에도 일어난 화재사고로 남조선군 사병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가관은 이번 사고가 인간쓰레기들이 날린 뼈라몽치가 철조망에 걸려 그것을 회수하려던 과정에 풍선에 있던 가스가 폭발하면서 일어난 사실이다.

남잡이가 제잡이라고 《표현의 자유》니 뭐니 하며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을 반대하는 뼈라살포행위에 내몬

남조선보수당국의 대결책동이 결국 제 사병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빚어낸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인간쓰레기들의 뼈라살포당동때문에 가혹이 나 군사적긴장이 첨예한 군사

분계선일대에서 언제 총들이 날아날지 알수 없는 위험이 끝없이 조성되고있다. 그것때문에 군사병들이 간이 콩알만 하여 긴장을 잠시도 늦추지 못하고있고 분계선일대에서 사는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있다. 언제인가는 북으로 날린 뼈라가 역풍을 만나 남측지역에 떨어져 그것을 치우겠다고 군대와 경찰, 지어는 민간인들까지 동원되어

부다소동을 일으켜 화재가 되기도 했다.

조국을 반역하고 돈밖에 모르는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을 리용한 남조선보수당국의 반공화국 뼈라살포행위의 결과란 바로 이

렇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앞으로 계속 뼈라를 뿌리는 망동을 하게 내버려둔다면 이번과 같이 단순히 사병 몇명이 부상당하는것으로 그치지 않으리라는것은 명백하다.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도발적인 북침핵전쟁책동으로 극도로 긴장된 현 정세하에서 별레보다 못한 인간추물들을 리용한 박근혜보수당국의 반공화국뼈라살포소동은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김장호

단 평

남을 잡으러다가

분계선일대에서 언제 총들이 날아날지 알수 없는 위험이 끝없이 조성되고있다. 그것때문에 군사병들이 간이 콩알만 하여 긴장을 잠시도 늦추지 못하고있고 분계선일대에서 사는

최근 남조선에서 군부당국이 사병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는 또 하나의 어리광대 놀음이 벌어져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군부당국이 여러 달째나 《긴장된 근무》를 서느라 쌓이고쌓인 사병들의 정신육체적피로에 대한 그 무슨 《보상》으로 《전투휴무》와 《특별로휴가》, 《초과근무수당》을 준다. 《위문공연》과 영화감상을 시킨다. 《정신교육》을 강화한다 하며 급작스런 분주량을 피우고있기때문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은 년초부터 이른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 강화를 위한 군사적조치들을 놓고 제풀에 겁에 질려 돌아가던 끝에 《단호한 응징》이니, 《처절한 보복》이니 뭐니 하고 떠들며 경계근무를 강화한다. 《대응책》을 강구한다 하며 사병들을 들볶아

뿐만아니라 3월초부터는 온 겨레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사병들을 북침전쟁연습에 내몰았다.

그러니 녹아나는것은 사병들뿐이고 그들의 정신육체적피로가 쌓이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더우기 북의 초강경군사적대응조치에 놀라 언

제 죽을지 몰라 허둥대는 사병들을 보며 군부당국이 물에 빠진 놈 지푸래기라도 잡는 격으로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선것이다.

오죽 급해났으면 남조선당국자까지 나서서 사병들에게 《철통같은 대비태세》니, 《더 좋은 군복무환경 지원》이니 뭐니 하는 《격려서신》이라는것까지 보내는 주태를 부렸겠는가.

허나 사랑발림식의 그

러한 《대책》놀음이 과연 《효과》를 볼수 있겠는지.

몇몇 사병들을 경계근무에서 떼내어 휴식을 준다가 휴가를 보낸다고 해서, 또 제 명을 다 산 박근혜로파따위의 《격려서신》이나 보내고 《위문공연》과 영화감상이나 시킨다고 해서 공화국의 무자비하고 강위력한 타격력앞에 아예 기가

떨려버린 남조선군사병들의 《사기》가 오를리 있겠는가.

각종 기합과 폭행에 시달리고 북침전쟁훈련에 매도 시도 없이 내몰려오누워의 더위먹은 개처럼 허만 내밀고 혈맥이 있어서 지금 제일 바라는 것은 그 어떤 《위문공연》이나 휴가가 아닌 북을 자극하는 군사훈련중지뿐이다.

애초부터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식민지고용군이 자주의 강군, 거기에는 미국망도 날려보낼수 있는 수소탄까지 보유한 공화국의 강군과 맞서보겠다고 《평양진격》이니, 《참수작전》이니 하며 분수없이 날친게 잘못이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합동참모본부 의장이란자가 해군작전사령부와 잠수함사령부를 싸다니며 《북지휘부 타격작전점집》이니, 《만반의 대비태세》니 하면서 무슨 일을 칠듯이 기고만장하여 날치였지만 그것은 다 죽어 송장냄새

가 풀풀 나는 정신병자의 외마디비명에도 불과한것이 다. 날이 갈수록 북의 기상은 더욱 도그해지고 지금껏 보지 못한 핵탄, 신형대구경방사포 등이 런속 공개되니 언제 죽을지 몰라 공포에 질리고 맥이 빠진것은 오히려 남조선호전광들자신인것이다.

군사적압박과 위협으로 공화국을 어찌보겠다고던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거꾸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에 당하고 패배의 한숨소리를 짓고있는 것이 오늘의 조선반도현실이다.

남조선군부당국이 《휴가》를 준다. 《위문공연》을 한다 하며 어리광대 놀음을 벌리지만 이미 기가 죽고 맥이 빠진 패자들의 《사기》를 울려줄수 있겠는가. 미국도 공포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위의 핵강국과 군사적으로 맞서보았댜자 미군과 함께 개죽음밖에 당할게 없는것이 남조선군의 가련한 처지이다.

본사기자 서 희

최근 남조선보수언론들이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안보리사회의 《대북제재결의》로 공화국이 《70일전투계획》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었다.》느니, 《돈이 없어 걱정이 커지게 되었다.》느니 뭐니 하는 모략나발을 불어대고있다. 지어 《관혼상제금지》니, 《탈북시도》니 하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까지 내뿜고있다.

날로 고조되는 공화국의 역센 기상과 노도치는 전진앞에 기철초풍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언제 이 땅에 와보거나 하고 그따위 잡소리를 제치는가 하는것이다.

지금 공화국의 전역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정의 70일전투가 벌어지는 속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변혁이 창조되고있다.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

의 길을 따라 자력자강으로 세계적인 핵강국, 위성강국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떨쳐지고 만부하의 동음 드높이 전례없는 생산성과들이 런일 이룩되고있다. 하기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제재소동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끄떡없이 인민의 락원을 꾸려가는 공화국에 세인은 경탄의 눈길을 보내고있다. 공화국의 이 용용한 기상과 그것이 세계에 미칠 영향에 겁을 먹고 불안을 느낀 박근혜패당은 악질적인 보수언론들을 내세워 비렬한 모략나발을 불어대며 공화국의 현실을 가리워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는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인민들이 누리는 참된 삶의 가치도 느낄줄 모르는 대결매물자들이 집권자의 입김에 놀아나 현실을 완전히 외곡날조하는

모략나발을 불어대는것이 야말로 박근혜와 함께 겨레의 심판을 받아야 할 반통일매국행위이고 극도의 도발행위이다.

그런 허튼 나발을 불어댄다고 밝은 현실이 암흑의 현실로 될수는 없다. 적대세력들과 그 매물가들의 입에서 무슨 다른 좋은 소리가 나올리도 만무하다.

그들이 혈투어낼수록 그만큼 공화국의 역센 자주기상과 초강경군사적대응조치, 놀라운 경제성과에 그들자신이 공포에 떨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낼뿐이다.

공화국이 자강의 힘으로 행복과 번영의 부를 창조하며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계속 나간다는것을 도발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누구도 조선이 가는 길은 돌려세울수 없다.

본사기자 김련옥

자위의 핵강국과 군사적으로 맞서 보았댜자 ..



인권지옥에서 울리는 소리

불안을 먹고 사는 지금이 바로 란세

모든 경제지표는 지금 거꾸로 간다. 소비가 늘어나지 않아 난리라고 하고 자영업자가 급감했다고 한다. 2015년 상반기에만 10만 1000명의 자영업자가 줄어들었다. 직을 싸다니며 《북지휘부 타격작전점집》이니, 《만반의 대비태세》니 하면서 무슨 일을 칠듯이 기고만장하여 날치였지만 그것은 다 죽어 송장냄새

렇게 될줄 알고있었다는 듯이. 소비가 줄고 자영업자가 몰락하는것은 소득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맞물린다. 내가 잘 먹고 잘살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타에 온 사회가 움츠러 들고 허리띠부터 졸라매고있다. ...

경제적불안은 만성화됐다.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느라 모두가

두들 골물중이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지금이야말로 란세나 다름없다. 《란세란게 뭐냐. 란세란 바로 약자의 지옥이다.》 많은이가 동의를 표시했고 그만큼 우려결에 란세는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

나라전체가 고용절벽에 내몰리며 경제적불안에 휩싸이는 지금의 모습은 분명 란세다. 원래 란세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활로를 찾는다. 그런데 그런 영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죽을수 없는 법이다. 이제 개개인이 란세에 답하는 법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남조선 《시사저널》 2016년 1월 5일 호에서 전재)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무참히 수장된 나 어린 령 혼들의 피맺힌 원한을 풀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 공동성토문

현대력사에 가장 경악스럽고 참혹한 비극적재난으로 기록된 《세월》호대참사가 일어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오고 있다.

허나 어둡고 차디찬 바다속에 수장된 어린 자식들을 애라게 찾고 부르던 남녘의 동포형제들과 더불어 우리들의 가슴속에도 그 피해자들의 통한과 아픔이 생생히 살아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억이 막히고 사무치는 슬픔에 오장이 찢어진다.

우리 북녘의 소년단원들이 별천지처럼 일떠선 소년단야영소들로 행복의 야영길을 떠날 때 경기도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도 제주도로 향하는 배길에 올랐었다.

난생처음 차려진 수하러행이기에 즐겁게 웃고 떠들며 떠났던 그 길이 영원히 돌아올수 없는 죽음과 재난의 길로 될줄 누가 과연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배가 침몰되고있는것을 뵈히 보면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 한마디에 살려달라는 소리도 못 지르고 죽어가던 아이들, 차오르는 바다물에 잠기지 않으려 안타까이 얼굴을 내밀며 손끝이 모지라져 피가 나도록 피창을 긁어대던 애처로운

모습들. 남조선사회가 아무리 메마르고 각박하다한들 세상을 향해 마지막으로 내민 그 손길을 잡아줄 한줄기 인정마저 없었던 말인가.

해양경찰이니, 그 무슨 《구조대》니 하는 허울좋은 이름은 그렇게 많은데 그 어린 목숨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것을 뵈히 보면서 어찌 그렇듯 속수무책으로 있을수 있던 말인가.

《세월》호대참사야말로 천하의 무법천지, 일반대중은 살아갈래야 살아갈수 없는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에서나 벌어질수 있는 비극의 극치이며 사람의 탈을 쓴 간악무도한 박근혜패거리들만이 저지룰수 있는 죄악중의 대죄악이다.

시시각각 배가 침몰되어가고 있을 때 박근혜는 구조대책은 커녕 몇시간동안이나 행적조차 알수 없는 어느 구석에 처박혀 더러운 패륜행위에 빠져있었고 수하졸개들은 그들대로 팔짱을 끼고 악귀두목이 지시주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선장이라는자는 제 목숨만 살리겠다고 제일먼저 배에서 탈출하였는가 하면 해양경찰이니 뭐니 하는것들은 《세월》호주위를 빙빙 돌면서 사진이나 찍어대며 시간을 보냈

다고 하니 무고한 수백명이 목지를 묘앞에 두고 졸지에 죽어간 세계적인 대참사는 사회악이 부른 필연적재난이고 고의적인 아동대학살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패당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시체장사군》, 《거지근성》 등으로 모욕하며 피눈물 흐르는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수중고혼들에게 두벌죽음을 강요하였다.

초상나 온 남녘땅에 비예의 곡성이 차넘치고있을 때 박근혜는 바다 건너 양키두목을 끌어들이어 잔치판을 벌려놓고 히히닥거렸는가 하면 참혹한 때죽음앞에서는 눈썹 하나 까딱않다가 미국대사라는자가 정의의 징벌을 받았을 때에는 허둥지둥 달려가 극진히 《위안》한다 어쩐다 하여 여론의 저주와 규탄을 받았다.

《세월》호참사는 남조선사회의 자화상인 동시에 박근혜통치하에서 더욱 비참해질 앞날에 대한 예고였다.

보라, 오늘의 남조선현실을!

온 사회가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거대한 《세월》호이고 그 선장은 악착스럽고 더럽고 무능한 박근혜가 아니라

말인가.

지금 남은 임기 2년동안 저 혼자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치는 마귀합미의 독기가 곳곳에 뻗쳐 정의와 진리가 질식되고 민생이 파탄나 나날이 재난의 바다에 빠져들고있는 남녘땅에서는 어른, 아이 할것없이 모두가 숨막혀 죽어가고있다. 고단한 삶의 막바지에서 마지막숨을 몰아쉬며 할딱거리고있다.

미국놈들에게는 막대한 유지비를 선겨바치고 북침전쟁준비에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뿌려대면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몇푼이 아깝다고 눈알을 부라리고 가난한 집 학생들에게 점심밥이라도 먹이자고 하면 《중복》세력이라고 벽적 고야대고있는것이 박근혜패거리들이다.

남조선의 어린이들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온갖 치밀리는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못해 자살의 길을 택하고 상상도 할수 없는 흉악한 범죄의 나락속에서 꽃같은 인생들을 망치고있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은 그들의 불행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독선과 전횡을 일삼으며 공포정치, 폭압정치로 굴종과 순응만을 강요하고있다.

서슬푸른 그 독재의 칼날앞

에서는 살아있어도 죽은 몸이나 다름없으니 살인마녀 박근혜의 독기가 차넘치는 인정의 동토대 남조선에서 어떻게 한송이의 꽃인들 제대로 피어날수 있겠는가.

한지맥으로 잇닿은 북과 남에 꽃피는 자연의 4월은 함께 꽃피었지만 남녘땅엔 천하를 쫓아온 영구한 랭혹한 광풍이 몰아치고있을뿐이다.

돈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고 무한대한 탐욕만이 차넘치는 사회, 인민을 위한 정치는 없고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만 무참히 짓밟혀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남녘의 청소년학생들은 똑똑히 투시해보아야 하며 참된 미래를 위해 일떠서야 한다.

책상앞에 마주앉아 박근혜가 쥐여주는 《국정교과서》 따위 나 열심히 외운다고 하여 그 무슨 희망이 있고 앞길이 열리겠는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고있다가 끝끝내 살아돌아오지 못한 《세월》호희생자들처럼 파도쳐오는 재난과 불행, 절망적인 미래를 앞가 기다릴것이 아니라 회색의 살인악마 박근혜패당을 반대하여 분연히 떨쳐일어나야 하며 자신들의 힘과 용기로 저주로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이 시각 메아리치는 《세월》호령혼들의 절절한 웨침도 바로 살인귀 박근혜를 복수해달라는 피의 절규이다.

나이는 비록 어려도 억울하게 숨진 학우들의 복수를 위하여, 그들처럼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기 위하여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설 때는 왔다.

살인마녀 박근혜에게 표를 찍어주고 그 대가로 삶의 소중한 모든것을 송두리채 빼앗기고있는 남녘의 수많은 학부모들이여!

자식들의 죽음을 용납할수 없고 냇이라도 살아돌아오기를 바라다면, 다시는 어린 생명들이 헛된 희생을 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악의 화근, 살인마무리인 박근혜패당을 단호히 징벌하라.

박근혜는 독바로 알아두어야 한다.

애 어린 무고한 생명들을 불행과 재난의 구렁렁이에 몰아넣고 온 남녘땅을 인간불모지, 참혹한 생지옥으로 만든 대죄악은 반드시 계산될것이며 그 더러운 이름과 몸뚱아리는 죽어서도 우리 후대들로부터 두고두고 저주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주제105(2016)년 4월 9일 평 양

인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귀 《정권》

예로부터 흐르는 세월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라고 했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아물지 못하는 상처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중에는 지금으로부터 2년전에 있는 《세월》호참사도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남해바다에서 침몰할 당시 거기에 수하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을 포함하여 500명이 가까운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 그중 간신히 살아난 사람은 170여명이고 나머지 300여명은 침몰된 배와 함께 김푸른 바다속에 수장되었다.

《세월》호가 침몰된것은 육지에서 불과 3km 떨어진 수역이고 배가 기울기 시작한 때로부터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는 무려 6시간이 걸려 노력만 하면 사람들을 충분히 구할수 있었다. 태평양도 아닌 눈앞에 뵈히 보이는 북지 가까이 수역에서 37m깊이에 침몰한 배를 제대로 구조하지 못하여 수백명이 졸지에 수장된 《세월》호참사는 그 어떤 자연재해나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세계를 경악시킨 《세월》호참사는

반인민적악정만 일삼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의해 감행된 고의적인 대참살이고 특대형반인민범죄이다.

남조선에서 《세월》호대참사가 있는 때로부터 2년이 되어오지만 당시의 끔찍한 비참상이 지금도 남조선인민들의 기억속에 그대로 각인되어있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창문을 두드렸지만 《가만히 있으라》며 제한목숨만 건지기에 급급한 선장과 선원들의 추태는 그대로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모습이였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승객들의 운명이 분분 초초를 다루던 그 위급한 7시간동안에 집권자라고 하는 박근혜는 사건이 일어난것도 모르고 댕개 있었다.

피해자가족들이 바다만 허염없이 바라보며 눈물과 비분속에 잠겨있을 때 실종자명단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피해현장에서 제 배만 채우겠다고 제멋스레 죽석국수만 먹어대고 식당에 몰려가 술판, 먹자판을 벌린자들이 다름아닌 박근혜 《정권》의 고관대작들과 《새누리당》의 족속들이다. 초상집분위기에

는 아랑곳없이 미국상전을 끌어들이어놓고 기등서방 맞이한 기생처럼 꼬리치며 아양을 떨어던것이 바로 박근혜이다.

가짜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는 어처구니없는 팽대국을 벌리고 《국회》알마당에서 단식하는 유가족들에게 눈길 한번도 돌리지 않고 코대를 잔뜩 세운채 지나친 박근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의 감정은 아직도 쌓여있다. 몸에 피가 아니라 핏덩이만이 가득찬 이 암독사에 의해 참사가 일어난지 2년이 되는 지금도 피해자가족들과 남조선인민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어느것 하나 똑똑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피해보상대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피해자가족들의 요구에 《시체장사》, 《거지근성》이라는 망발로 아픈 마음속 상처에 소금까지 뿌리는 죄행을 빼적이 감행한 인두집을 쓴 현 집권세력이나 그들이 반인민적통치를 한 지난 3년간 남조선에서 온갖 참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인민들의 생존권이 최대로 짓밟혀 자살자가 날로 늘어나는것이 우연한것이 아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에 표를 찍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차례진것이 바로 《세월》호참사이고 갈수록 커만지는 불안과 고통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반인민적악정과 폭정의 공포지대로 화하고있다. 독재의 칼날에 수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맞아죽고 살기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음밖에 차례질것이 없는 암흑천지를 탈출하는것이 하나의 류행이만이 가져지고있는 비참한 남조선현실이다.

현 남조선 《정권》은 죽음을 부르는 살인 《정권》이고 그 피수인 박근혜는 살인두목이다. 지금 누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박근혜탄핵》을 부르짖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가만히 있으라》 남조선에서 《세월》호참사와 함께 류행된 이 날 말은 독재권력이 인민들에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한 설교였다.

그때문에 엄청난 불행과 재난을 당해온 남조선인민들은 지금 《가만히 못있겠다》라며 재앙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낼 중오의 일념안고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김 응 절

죄는 지은 데로 간다

오늘도 학생들의 맑은 눈동자들을 바라보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위대한 후대사랑의 정치하에서 마음껏 배움의 나래를 펴고 온갖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 학생들처럼 복된 아이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

2년전 남쪽에서는 수학여행을 떠났던 수백명의 학생들이 억울하게도 바다에 고스란히 수장되는 참사가 빚어졌다. 돈밖에 모르는 메마른 인정의 풍토

에서 태어나고 《정부》를 잘못 만난탓에 아이들은 꽃망울도 피어보기 전에 짓밟혔다. 그렇다. 바로 썩은 정치탓이었다. 아이들의 깨끗하고 맑은 눈동자를 보호하고 삶을 지켜주며 미래를 꽃피워주려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아이들이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듣자니 지금까지도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그 진상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폭정아래 버려지고 폭행당하는 아이들, 청소년자살자들이 계속 늘어만나고있다고 한다. 예로부터 죄는 지은 데로 간다고 했다. 나라의 소중한 미래이고 희망인 아이들을 학대하고 죽음의 구렁렁이에 밀어넣는 그런 《정권》은 천벌을 받기 마련이다.

평양산업소학교 교원 김혜숙

악의 무리를 쓸어버려야...

이번에 나의 아들은 사람들의 추복속에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인민반과 직장에서 사람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자식을 잘 두었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세앗도 품어주고 키워주는 은혜로운 손길이 있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법이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희망을 꽃피울수 있게 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를 떠나 어찌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될수 있겠는가.

지금도 나는 2년전 수백명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간 남조선의 진도 앞바다에서의 《세월》호참사를 잊을수 없다.

제도를 잘못 만난탓에, 짐승보다 못한 박근혜와 같은 악녀를 만난탓에 꿈과 희망은 고사하고 소중한 목숨을 차디찬 바다속에 버리지 않으면 안된 그 수많은 학생들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린다.

그러나 아직까지 박근혜는 천벌맛을 죄악으로도 모자라 해의를 개싸다니듯 돌아치며 동족압살을 쉼대고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구름을 미친듯이 몰아오고있다.

남조선에서 《세월》호참사와 같은 참변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자고 해도 그렇고 우리 민족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자고 해도 박근혜와 같은 악의 무리, 민족반역배들을 쓸어버려야 한다.

평양시 동대원구역 한미영

